

◀하나님! 나의 하나님▶ 토끼의 사랑...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토끼의 소중한 마음이었죠.  
 어느날 토끼는 거북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북이는 너무나 느리고 굼뜬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어이~ 느림보 거북아! 나랑 경주해보지 않을래?  
 "토끼야, 내가 비록 느리지만... 너와 경주를 하겠어.  
 빠른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높은 언덕 꼭대기까지의 경주였습니다.  
 물론...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거북이가 쫓아올까? 설마 포기하는건 아닐까?'  
 토끼는 거북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길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가 다가와 자신을 깨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둘이서...

거북이는 길가에 잠든 토끼를 추월해서 경주에 이겼답니다.  
 그렇지만 거북이는 몰랐죠... 잠든 척 누워있던 토끼의 눈물을..

경주가 끝나고... 거북이는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토끼는 자만과 방심의 낙인이 찍혀버렸죠.  
 그렇지만 토끼는 그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북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더라요.  
 거북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토끼 혼자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면 그랬지▶ 뽕튀기  
 '뽕이요'하는 소리와 함께 퍼지던 하얀 김,  
 새어 나온 뽕튀기를 찾아 일제히 달려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자루 수북하던 장롱속의 뽕튀기 자루, 아  
 랫목에 발을 넣고 먹다 이불 위에 떨어진 강  
 냥이 가루 툭툭 털다보면 어느새 빈 자루.  
 바지 속 깊숙이 손 찢려 넣고 뽕튀기 아저씨  
 주변에 서있던 그때가 그리웁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34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8월24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어느 목회자의 고백

-김영현-

그 때 나는  
 나사렛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로 설교를 했다  
 어느 순간 나는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세련된 설교를 하고 있었다

아아!  
 그 때 내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에게 남은 것은  
 목회적 욕망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속물적인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 때 나는  
 영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눈물로 심방을 했다  
 어느 순간 나는  
 교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소띤 얼굴로  
 아부하며 심방을 하고 있었다

나 이제 다시 돌아가리  
 눈물이 있던 그 때  
 주님의 마음이 있던 그 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그 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고자 했던 그 때  
 나 이제 다시 시작하리



그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성전을 건축했다  
 어느 순간 나는  
 육신의 안일 속에 만족해 하며  
 화려한 건물만 지키고 있었다

엄마가 딸에게  
 상식을 많이 알아 두어라  
 살다보면 전문지식보다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너는 겸허하면서도  
 해박한 여자가 되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끔은 새벽 거리에  
 나가보거라  
 밤에 열심히 사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  
 너는 부지런한 자가 되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6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4 (시편 46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5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종건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20: 1-1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믿음시리즈(7) "함께 격려하는 믿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12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권용일, 이지영 집사 가창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3	최재학	유성희	권사회	유병민, 윤행권
10	김교섭	이근평	장로, 안수집사	이근평, 이재윤
17	김순자	이금선	권오걸, 허미숙	정관영, 정종일
24	김종건	이기중	권용일, 이지영	조용건, 최득수
31	김영길	이재윤	학생부교사	최원영, 최재학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 \*최득수 집사, 한국방문 마치고 귀국.
  - \*지찬영 권사, 미국에 계신 부모님 방문위해 출국(21). 노부모님 방문은 늘 마지막 갈아 떠나오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 \*김경일 집사, 개업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일예배. 여러 성경공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결국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방법의 다양함입니다. 수요일밤의 성경강해, 우리 생애에 끝나지 않을 성경공부과정입니다
  - \*<일시> 매 수요일 저녁 7:30.
- 남선교회 친선 족구경기(예고). '주님의교회' 남선교회와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 <일시> 다음주일(31일), 오후 3:30-5:30. <장소> YMCA (City)
  - \*오후 3시까지 YMCA 로 모입니다(네트설치)
  - \*총감독: 박일영 집사, 1남 감독: 김중원 집사
  - 2남 A팀 감독: 이주익 집사 B팀 감독: 최현철 집사
- 새벽기도. 매 금요일만 갖는 새벽기도회는 내 어깨의 자랑인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매주 금요일 새벽 6시. 교회

### ◀착한 시인들▶ 가난한 사랑노래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썹인 굴뚝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러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불에 와 달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지요?'  
라는 어느 정도의 웃으며 하  
는 하소연이 사라지지 않는  
이명으로 맴돌았습니다.  
하얀 웃음 띄며 풀밭 뛰노는  
아이들 보는 소원으로 왔을  
텐데, 머리카락 뺨을 감추는  
바람 맞으며 내 사랑과 걷는  
그림도 그려 보았을텐데, 성  
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  
보다 자원해서 봉사 많이 하  
고싶을 텐데...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험박성 애원을 안고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